

젊은 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더 좋아진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신생아 양육비 2000만원까지 보육재단 설립·어린이집 확충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광양시가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양=광양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연령은 38.7세(전남 44.3세, 전국 40.8세)이며, 합계출산율(2015년 출생통계)은 1.835명(전국 1.239명)이다.

광양시의 취학 전 보육아동은 1만1600여명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26%,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56%, 유치원 이용 아동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148개소(국공립 12, 사립 136)로, 법인·단체 2, 민간 64, 가정 59, 직장 1)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38개소에 이른다.

광양시는 합계출산율이 1.835명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2013년 이후 출생인구가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양육정책은 임신, 출산, 보육,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애주기에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임신 전 계획적인 임신을 위한 예비교육을 시작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임신기간에는 산모와 아이를 위한 건강지원,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 및 양육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신생아 양육지원비 최대 2000만원=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

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 시행하고, 산모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최대 20만원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14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광양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는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시책을 진행 중이다.

◇보육재단 설립·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사업으로 기반조성, 건강지원, 양육지원, 도시인프라, 체험지원 5대

영역에서 12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 건립, 도시공원 및 유휴지 놀이시설 조성, 치유숲 조성 등이다.

광양시는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정책을 실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환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자라며, 부모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행복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제철 12년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176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귀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 실 천으로 12년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양제철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인근지역의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176세대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8월 말 기준으로 인근지역의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176세대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광양제철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상반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8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공사와 옥상 및 지붕 등 각 세대별 맞춤형 공사를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10세대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한 광양제철소 지역협력센터 관계자는 "제철소가 지역사회를 위해 12년째 이어오는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세대의

주거공간이 생활하기 편하게 개선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200호, 300호까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사회건설, 두양전력, 혁신실업 등 전문기술과 인력을 가진 패밀리사와 함께 먼저 지붕과 단장 등을 보수해 왔다.

이들은 페인트로 외부를 단장하고 등기구와 장판·벽지 교체, 빗물이 새는 지붕과 환관문, 화장실을 수리하고, 낡은 전선과 전등을 교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는 광양시 사회복지과 추천과 소외계층 선정기준에 따라 광양동, 태인동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여수모도동 등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지난 8월 이동수단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3대를 기증하고, 소외계층 화재예방을 위해 광양소방서에 소화기 500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이번 추석명절에는 광양향 1256포대를 구입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세종산단 융복합소재실증화 지원센터 착공

광양 세종일반산업단지 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는 연구소 기능을 담당하는 융복합소재실증화 지원센터의 건축설계를 올 8월까지 완료하고 광양경제청으로부터 지난 12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세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융복합소재실증화 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 4250㎡, 연면적 7462㎡)로, 올 10월 착공해 내년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융복합소재실증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 R&D 기술지원 및 실증화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외농 광양경제청장은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기도 한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서 "세종산단 내 기업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성 화학소재는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의약품 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기능(편광특성, 이차전지 분리막 등)을 가진 화학소재로 성능의 차별성이 높은 배합위주의 화학소재를 지칭하며 정밀화학 소재로도 불린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광양시, 오스트리아 '브루크너 페스티벌' 사진전 성공리 마쳐

문동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양시 대표단은 최근 유럽 문화수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된 브루크너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해 광양 사진전과 특산물 홍보를 했다. 광양시는 '태양을 담은 광양'을 사진전 주제로 정하고 대나무를 화단 형태로 조성해 태양의 힘, 열정, 꿈, 문화, 열매로 광양의 이미지를 담은 사진 21점을 전시했다. <광양시 제공>

매천전국학생서예대회·시조경쟁대회 잇따라 개최

광양시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제14회 매천전국학생 서예대회'와 '제7회 전국시조경쟁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에 열리는 '매천전국학생 서예대회'는 광양출신으로 구한말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말알회와 매천향현추모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초·중·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전국 학생들이 참가해 호국보훈을 주제로 서예실력을 겨루게 된다.

25일에 열리는 '전국시조경쟁대회'는 시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사)대한시조협회 광양시지회 주최로 진행되는 대회이다.

시조경쟁대회는 광양을 상록화관에서 학생부, 단체부, 명장부, 대상부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전국의 시조호인들이 모여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겨루고 재능 있는 신인도 발굴할 예정이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과(061-797-271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25일 광양시장기 검도대회...300여명 출전 화합 다져

광양시는 22일 "올해로 6회를 맞는 광양시장기 검도대회가 오는 25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광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양시 검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검도대회에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보성군, 고흥군, 영광군 등 300여 명의 검객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대한검도회 회원으로 가입된 급·단

증 소지자에 한해 출전 자격을 가지며,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해 각각 초·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조희수 광양시 체육진흥팀장은 "꾸준히 개최하는 시장기 검도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 광역시와 동호인도 함께하는 명품 검도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비전타워 11층 스카이라운지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11층 절반은 골프존이 현재 입점해 있으며, 호수공원 전망 탁월~
- 11층만의 특별한 공간, 야외테라스!
- 주변 배후세대 5000여가구 밀집

권장업종
키즈카페, 유틸리티센터, 스카이라운지, 고급중식당, 뷔페등

- 11층 전용면적 178평

비전타워 분양 대행사 비전공인중개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6호)
대표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